

누가 진짜 왕

* 10/14(목) 열왕기하 ② 5-8장

분열왕국 1-17장

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1장
엘리야의 승천, 엘리사의 계승 2장
이스라엘 왕 여호람 3장
엘리사의 기적들 4장

▶엘리사의 이야기 5장-8:15

- 엘리사와 나아만
- 엘리사와 떠오르는 도끼
- 아람 군대 vs. 불말과 불병거
- 포위된 사마리아, 나병 환자 4인
- 수넬 여인 / 하사엘

참고도서

100주년기념 성서주석
두란노 HOW주석
성서유니온 열왕기
통성경 길라잡이

▶유다 왕 여호람 8:16-24

- 여로보암의 길 / 8년 통치
-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동명이인
- 아합의 딸과 결혼, 아합의 집 같음
-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심

▶유다 왕 아하시야,

이스라엘 왕 예후 8:25-10장

- 아하시야 : 여로보암의 길 / 1년
- 아합의 집의 사위
- 예후 : 여로보암의 길 / 28년 통치
- 이세벨의 끝, 예언의 성취
- 예후 왕조 시작

유다 여왕 아달라 11장

유다 왕 요아스 12장

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 13:1-9

이스라엘 왕 요아스 13:10-25

유다 왕 아마샤 14:1-22

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
14:23-29

유다 왕 아사랴 15:1-7

이스라엘 왕 스가랴 15:8-12

이스라엘 왕 살룸 15:13-16

이스라엘 왕 므나헴 15:17-22

이스라엘 왕 브가히야 15:23-26

이스라엘 왕 베가 15:27-31

유다 왕 요담 15:32-38

유다 왕 아하스 16장

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17장

Before 줄치며 읽기

친히 일하시는
<진짜 왕>을 묵상하며
통독해 보십시오.

After 묵상하기

내가 믿음의 눈으로
봐야 할 '진짜 현실'은
무엇입니까?

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람을 구원하십니다(5:1).

이스라엘 사람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자,
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(왕상 17:17-24, 18:20-40).

• 시점의 차 : <누가> 진짜 왕인가

전쟁 포로로 잡혀온 '어린 소녀'의 말을 듣고,
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.

큰 용사이거나 나병 환자인 나아만.

그의 왕에게는 그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.

인간의 생사화복은 <왕>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(4:8-37).

환자를 직접 만나지도 않고, 처방만 내려줍니다.

"내 생각에는 ... (5:11)."

그에게 여호와께는 그저,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

지역의 신 일 뿐이었습니다.

성의 없는 처방은 분노로 눈이 뒤집히게 합니다.
회복을 기대하고 온 주인에게 그의 ‘종들’이 다시, 회복을 상기시킵니다.

<어린 소녀>, <종들>,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간,
무명(無名)의 주인공들을 통해 은혜를 시작하시고, 이어가십니다.

• 시야의 차 : <무엇을> 보고 있는가

치유는 마법을 부리듯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.
여호와와는 단지 여러 신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.

<놀라움에 사로잡혀> 믿음을 고백합니다(5:15, 17-18).

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음으로,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.
이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.

그러나 경이로운 경험이 반드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(눅 4:22).
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‘탐욕에 눈이 먼 사람’은 탄식과 책망, 죄의 열매를 거둡니다.

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(6:8-12).

아람 왕은 엘리사가 볼 수 있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. 엘리사의 사환도 볼 수 없었습니다.
군대에게 포위당해도, 엘리사는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다.
그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는 주님이 보입니다.
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간 불말과 불병거입니다(2:11).
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(눅 21:17-18). 눈을 여시기도, 어둡게도 하십니다.

• 시선의 차 : <어떻게> 봐야 하는가

믿음의 눈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, ‘진짜 현실’을 파악하는 것입니다.

‘여호와와 말씀이 들을지어다’ 믿음의 선포가
‘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되었고’ 승리의 선포가 되도록, 기다리는 것입니다(7:1, 16).

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.
마치, 죽음이 십자가를 이긴 것 같아 보였습니다.
허나, 실상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기셨습니다.

무엇을 보고 계십니까?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
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<왕>이신 주님으로 인해,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들어가고 계십니까?
“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… (고후 6:9-10).” 이것이 성도(聖徒)의 노래입니다.